

[사회]

광주·전남 사교육 대책부 2 학원 왜 가나?

“학교수업 만족 못해요”

광주 W중학교 1년 정모(13)양은 지난 3월부터 영어 단과전문학원에 매달 20만원을 내고 고등학교 1년 수준인 ‘심문종합영어’를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영어학원에 다니고 고등학생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춰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다. 정양은 지난 1학기 내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수업이 지루하게만 느껴졌고, 때로는 선생님 몰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예·복습하기도 했다. 정양은 “몇몇 하위권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의 경우 학교수업에서 새로 배울 것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한부모 가정’ 자녀인 광주 M중학교 2년 김모(14)군은 가정형편상 학원에 다닐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집에서 공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학력이 크게 떨어져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김군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학교 교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자신은 물론 자녀가 원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학교 교육에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광주지역 단과전문학원이 몰려있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학원가.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준별 수업 안돼 공부 의욕 없고 “우리 아이만 뒤쳐질라” 불안감속 학부모들 입시 경쟁심리 ‘부채질’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운영 중인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수준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 수 대비 교사 수 부족 등으로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영어와 수학 두 과목에 한해 실력이 비슷한 학생으로 따로 반을 편성해 수준별 이공수업을 하고 있는 광주 M중학교의 경우, 상·중·하급 반에 각 한 명씩 모두 3명의 교사가 필요한데도 한 학년에 담당 과목 교사가 2명밖에 없어 다른 학년의 교사 1명이 투입돼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까지 전 학년 수준별 이공수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학생 수 대비 교사 수 부족으로 전 학년 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자녀의 성적을 높고 치열한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의 경쟁심리도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부추기고 있다. ‘남의 아이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다니면 실력이 뒤쳐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광주 4개교, 전남 3개교 등 7개교 중학생 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학원에 다니는 학생 375명의 66%는 부모의 권유로 방과 후 학원 수업을 받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희망했다는 학생도 32.5%에 달

했다. 학원 수강생의 19.2%는 ‘남들이 다 다니니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수 정예 교육·비슷한 수준의 학생에 대한 맞춤형 강의·학생이 골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 운영 등은 학부모나 학생 모두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이런 설문 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학원수강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학교수업에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가 39.2%, ‘상급 과정을 미리 배워 학교수업 진도에 앞서 나가기 위해’가 24.5%, ‘수준에 맞는 교육 실시로 학교보다 이해가 잘 돼서’가 8.3%에 달했다.

학원수강이 성적향상 및 학교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도움이 됐다’가 31.2%, ‘조금 도움이 됐다’가 47.7% 등으로 78.9%가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원 수강료 때문에 부모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가 11.5%,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가 40%로 학원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젖은 비에 일조량 태부족 농작물 병충해 급속 확산

고추·참깨 등 생육 부진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마의 여파로 고추와 참깨 등 밭작물 생육 부진 현상이 심각해졌다. 젖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농작물에서 병충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시작된 장마가 오는 27일까지 이어져 장마기간이 예년 30일보다 긴 38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일조량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일 시간 중 461시간 그리고 평년 478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강수량은 지난 5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 573mm로 전년 466mm, 평년 363mm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같은 기상여건으로 인해 1차 수확기를 맞고 있는 고추의 경우 ‘초장’ (지면에서 생장점까지 길이)은 평균 98.2cm로 지난해 96.7cm에 비해 길지만 ‘주당 과수’(그루당 열린 열매 수)는 37.2개에 불과해 지난해 42.2개보다 무려 5개(11.8%)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깨와 콩 등 습기를 좋아하는 밭작물도 개화기 이후 극심한 생육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마가 길어지면서 벼 잎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등 병충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또 밭작물의 경우에도 고추 열매 탄저병과 역병, 무·배추의 무사마귀 병과 무름병 발생이 우려돼 적기 방제 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중학생 10명중 4~5명

“광주 외고 생기면 지원할 것”

시교육청 온라인 설문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광주지역 첫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지역 중학생 10명 중 4~5명이 외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학교 2학년 3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외고가 설립되면 반드시 지원하겠다’가 10%(38명), ‘지원해 보겠다’가 33%(121명)로 43%가 지원 의사가 피력했다. 42%(158명)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아예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학생은 15%(55명)에 그쳤다. ‘지원한다면 어느 학과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영어가 49%(184명)로 압도적이었고, 일본어 20%(74명), 중국어 15%(55명), 프랑스어 9%(32명), 독일어 5%(18명) 등이었다.

‘기속사가 있다면 입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꼭 입사하거나 입사할 생각이 있다’가 39%(142명)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49%(183명)였다.

외고 지원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알기 위해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외국어를 특기로 삼기 위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박철수 前 전남지사 별세



박철수(사친) 전 전남도 도지사 24일 오전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0세. 박 씨는 해남이 고향으로, 지난 1950년 5월1일부터 이듬해 12월16일까지 1년8개월간 전남도 2대 도지사

로 재임했다. 발인은 26일 오전 9시(수)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장례를 치른다. 장지는 천안 공원묘원이다. 문의는 (031) 787-1503.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해안 ‘약한 비’ 7월 25일 (음 7월 1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림	21~26℃
목포	흐리고 비	21~25℃
여수	흐리고 비	21~24℃
순천	흐리고 비	20~25℃
해남	흐림	20~27℃
영광	흐리고 비	19~26℃
보성	흐리고 비	19~25℃
고흥	흐림	20~27℃
진안	흐리고 비	20~26℃
완주	흐림	20~27℃
진례	흐림	20~26℃
영암	흐림	20~27℃
영광	흐림	20~27℃
영암	흐림	20~27℃
영암	흐림	20~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2:34 썰물 < 07:52
여수 밀물 < 09:07 썰물 < 03:16

▲해돋이 05:36 ▲해질 19:42 ▲달출 05:10 ▲달몰 20:04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7	21/26	23/30	24/31	24/30	24/30

학교급식 일부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관리 소홀... 학생건강 위협

전남도, 24곳 40건 적발

전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위생관리가 소홀해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도내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16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24개 업체 4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강진·영암·함평·장성에서 1개씩의 업체가 신고없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적발내용은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 9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5건 등이다.

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과태료 납부·경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전 전남도의원 사우나에서 돌연사

5·31 지방선거에서 장성 군수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전 전남도도원이오(62)씨가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숨졌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사우나에서 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후보였던 이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코카콜라 새 제품 어제부터 유통 재개

독곡물 투입 사건으로 광주 등에 유통된 PET 제품을 수거한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이 24일 새 제품에 대한 유통을 재개했다.

새 제품은 기존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병뚜껑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노란 뚜껑이 부착된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의 PET 제품 등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용봉동 M타워

용봉동 M타워

용봉동 M타워